

#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와 그 현대적 의미

문선영

선문대학교 · 교수

- |                 |                         |
|-----------------|-------------------------|
| I. 시작하며         | III. 대순사상 여성 이해의 현대적 의미 |
| II.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 | IV. 마치면서                |

## I. 시작하며

‘종교와 여성’에 관한 담론은 양산되지만 ‘종교와 남성’에 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sup>1)</sup> 기성종교가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 주도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3년 3월 가톨릭 수장인 교황의 선출 기간에 바티칸 곳곳에서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들은 분홍색 연기를 피워 남성만이 교황이 될 수 있는 가톨릭의 사제직에 나타난 성차별(sexism)의 현실을 문제 삼았다.<sup>2)</sup> 예수가 남성이며 그의 12제자 또한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전히 여성에게는 사제직의 길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세계 종교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가톨릭의 현주소다. 이러한 사실은 가톨릭(catholic)이란

---

1) Mary Pat Fisher, *Women in Religion* (New York: Pearson, 2006); Leona M. Anderson, Pamela Dickey Young, *Women and Religious Tradi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Majella Franzmann, *Women and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2) 「“여성 추기경 임명하라” 분홍 연기 폭죽」, 《한국일보》 2013. 3. 13.

보편적인 의미가 여성에게는 교단 내부에서조차 보편적이지 못한 현실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였다. 여전히 새로 선출된 교황은 여성사제서품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 내부의 성차별 현실 속에서 양성평등의 신앙공동체를 추구하는 기독교 여성신학(Feminist Theology)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신학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교권과 남성 중심적인 성서 이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sup>3)</sup>

성차별의 현실은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자행되고 있는 악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예살인(honor killing) 혹은 명예범죄(honor crime)다. 명예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들은 심각한 범죄를 초래하고 있다.<sup>4)</sup> 명예살인 혹은 명예범죄가 정조를 잃은 여성들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보는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정당한 행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처벌 또한 관대한 차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무서운 형벌을 피해 가기 위해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 미성년 남자가 가족을 대표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sup>5)</sup> 성범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도구나 착취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악습의 폐단은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이슬람 여성들은 이러한 악습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금지와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문화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 계층이었음에는 틀림없다.

한국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출현한 종단 대순진리

3)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참조.

4) 명예살인 혹은 명예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 Rana Husseini, *Murder in the Name of Honor: The True Story of One Woman's Heroic Fight Against an Unbelievable Crime*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9); Nicole Pope, *Honor Killing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이희수,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서울: 청아출판사, 2011), pp.310-313; 수아드, 『명예살인』, 김명식 역 (서울: 울림사, 2007); 오은경, 「이슬람 여성과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연구』 9 (2009), pp.1-29 참조.

5) 이희수,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pp.311-312.

회(大巡眞理會)의 사상, 곧 대순사상은 “가정화목·사회화합·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sup>6)</sup>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은 상제로서의 종교적 위상을 지니는 강증산(1871-1909)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증산은 당시 선천(先天)시대와 후천(後天)시대를 구분하여 기성종교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sup>7)</sup> 따라서 대순사상은 적어도 기성종교의 성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종교(新宗教)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그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 II.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

### 1. 음양합덕(陰陽合德)과 여성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순진리회의 주요 가

6)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2판), p.20.

7)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13판), 교운 1장 9절,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떨고자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세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파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르침인 종지(宗旨)에 주목하고자 한다.<sup>8)</sup> 대순진리회의 종지, 곧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담고” 있으며 “대순진리회의 근본교리에 대한 이해이며 모든 사상적인 설명”이 비롯되는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다.<sup>9)</sup> 따라서 이러한 종지를 중심으로 대순사상에서 여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된다.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덕을 이룬다는 음양합덕은 우선 음과 양의 개념이 대순사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그 의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典經』<sup>10)</sup> 교운(教運) 2장 42절에 나타난 음양경(陰陽經)<sup>11)</sup>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하늘과 땅, 해와 달, 드러난 것과 숨은 것, 인간과 신, 수컷과 암컷, 밖과 안,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양과 음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음양에 대한 이해는 음양 개념을 바탕으로 여성을 이해하는 동양철학적 맥락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상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음양설(陰陽說)은 시대를 거치면서 첫째, 자연현상을 표현하며 둘째, 우주에 작용하는 상대적인 강유(剛柔), 동정(動靜) 등과 같은 의미, 셋째, 오행설과 결합되어 우주의 성장 소멸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sup>12)</sup>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순사상에 나타난 음양개념도 이

8) 대순진리회에서 종지는 1925년 도주 조정산에 의하여 표명되었으며 이는 종통 계승의 의미와 그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 朴龍哲, 「宗指의 表明이 갖는 宗教의 意味에 대한 考察」, 『大巡思想論叢』 6 (1998), pp.399-426.

9)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3), p.35.

10) 『진경』은 신앙의 대상인 증산의 탄강으로부터 화천(化天)의 행적이 기록된 ‘행록(行錄)’, 9년간의 천지인 삼계를 개혁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 ‘공사(公事)’, 대순진리의 종통계승과 전수를 다루고 있는 ‘교운(教運)’,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범을 중심한 증산의 가르침을 담은 ‘교법(教法)’, 증산의 권능과 예지를 다루고 있는 ‘권지(權智)’, 증산의 고통 받는 민생들의 병을 치료하는 민생구제를 다룬 ‘제생(濟生)’, 후천선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예시(豫示)’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陰陽經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乾定坤順乾陽坤陰日行月行日陽月陰有神有人神陰人陽有雄有雌雌陰雄陽有內有外內陰外陽有右有左左陰右陽有隱有顯隱陰顯陽有前有後前陽後陰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대순진리회 종단의 창설자 박우당 도전의 훈시의 요의(要義)를 정리한 『대순지침』에 의하면,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13)</sup> 따라서 음양은 대순사상이 전개되는 진리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 된다. 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음양 개념은 대순사상에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性)의 구분 기준으로 고착되어 있지 않다. 한 개인을 보더라도 여성에게는 음양의 요소가 모두 내재하고 있다. 남성 또한 본질적으로 음양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sup>14)</sup> 다시 말하자면 대순사상이 말하는 음양은 존재하는 인간과 사회와 세계가 우주만상의 이치가 되는 음양의 상대성을 지님으로써 존재하며, 상호 관계 맺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적어도 대순사상에서 음양의 개념과 그 함의는 본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단순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종단의 사상체계 속에서 배제될 수 없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음양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음양은 본질적으로 우열(優劣)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며, 시비(是非)의 판단을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은 긍정적이며 음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sup>15)</sup>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음양 개념은 생물학적 성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성(性)을 통해서 양성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에 차별적 의미가 부여되고 이를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남성다움, 여성다움으로 적용함으로써 성차별적인 폐습을 낳기도 하였다.

12)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청주: 도서출판 하원정, 2009), pp.37-41.

13) 『대순지침』, p.18.

14) 인간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양성성(androgyny)은 인간에게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여성에게도 남성적 성품인 아니무스(animus)가 있으며 남성에게도 여성적 성품인 아니마(anima)가 있음을 주장한다. C. G. 융, 『C. G.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1993); C. G. 융, 『C. G. 융 무의식 분석』,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1994) 참조.

15)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pp.70-76 참조.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sup>16)</sup> 『典經』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순사상은 음양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지만 음양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존비(尊卑)와 같은 가치 판단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한계와 그 한계로 인한 차별적 문화의 형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순사상의 음양 이해는 음양 해석에 나타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典經』에 의하면 증산은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sup>17)</sup>을 지적하며 직접적으로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sup>18)</sup>고 언급함으로써 음양 개념에 대한 가치 판단적인 해석으로 인한 성차별적 인식의 태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순지침』에 의하면,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 생성(生成)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sup>19)</sup>고 하였다. 도의 위상을 지닌 음과 양의 요소가 개인의 도덕적 차원과 사회의 윤리적 차원에서 인성에 중요한 도덕적 기반이 되고 있다. 도덕적 인격체가 되어야 하는 여성과 남성은 개체적으로 음양의 조화로운 이치를 덕의 기반으로 하여 올곧은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 음과 양의 관계는 상호 대등하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상호 분리가 아닌 상호 조합의 관계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도로서 음양’이 지니는 덕의 차원이 인간의 온전한 도덕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16) 『전경』, 교법 1장 62절.

17) 같은 책, 교운 1장 9절.

18) 같은 책, 교법 1장 68절.

19) 『대순지침』, p.44.

20) 음양합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高南植,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의 原

『典經』에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sup>21)</sup>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음덕은 남성과 무관하며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덕이 아니다. 이는 적어도 대순진리회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온전한 도덕적 자아를 위하여 그 동안 남성 중심적 가치 판단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음적인 덕의 차원들의 위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여성과 남성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 음양의 조화로운 덕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관계적 차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은 지배 종속적 관계가 아닌 조화 협력적 관계임을 뜻한다고 이해된다. 더 나아가 음양합덕은 음적 요소, 여성적 요소에 대한 가치 평가 절하된 부분의 온전한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 신인조화(神人調化)와 여성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대순사상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종지에서 신격을 지닌 존재는 유일신(唯一神)이 아니며 다신론(多神論), 범신론(汎神論), 만유신론(萬有神論)적 성격을 지닌다.<sup>22)</sup> 또한 신은 인간의 사후(死後) 존재 양상의 하나로 묘사되어 설명되기도 한다.<sup>23)</sup> ‘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이슬람(Islam)에서는 유일신과 인간은 주종(主從)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유일신 사고와 비교해 본다면,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에 대하여 주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며 초월적인 절대타자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은 인간과 상호 소통하며 관계적 조화로우음을 논할 수 있는 인간과 상대적으로 대등한 격위를 지닌 존재로서 관계

理-後天仙境界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大巡思想論叢』 2 (1997), pp.375-399.

21) 『전경』, 교법 2장 18절.

22)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1), p.104.

23) 앞의 책, 교법 1장 50절,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습니다.”

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신의 위상이 격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신인조화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조화(調化)란 개념을 통하여 신인관계의 독특성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고를 조(調)’와 ‘될 화(化)’로 이루어진 중지에서 말하는 조화는 ‘조화(調和)’와 ‘조화(造化)’ 두 개념의 의미를 담아서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되고 있다. 이는 신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간의 신성한 변화를 내포한다.<sup>24)</sup> 이는 신인합일을 통한 신격을 지닌 인간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신성화가 가능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천지의 중앙”<sup>25)</sup>으로서 중심적 역할과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양으로 비유된 신과 인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음양합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중지 신인조화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典經』에 의하면, ‘신은 인간이 없으면 의탁할 수 없으며 인간은 신이 이끌어 준다. 신명은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은 신명을 기다리며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한 연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sup>26)</sup>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며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될 정도로 신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sup>27)</sup> 이러한 내용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결코 일방적이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상호간에 영향

24)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pp.168-169; p.261 참조.

25) 『전경』, 교운 1장 66절, 현무경(玄武經).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26)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人人人神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神明神明天地諸神明下鑑垂察奉命身太一聖哲所顯成就”

27) 같은 책, 교법 1장 54절. 이와 같은 신과 인간 상호 관계성은 다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전경』, 행록 3장 8절, “어느 날 종도들이 상제를 뵈옵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 효순의 난을 당하셨나이까」고 여쭙니라. 상제께서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



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신인조화는 단순히 신의 명령과 지배에 맹목적으로 종속되는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다. 『典經』에 의하면,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sup>28)</sup>고 한다. 따라서 신인조화는 인간을 통하여 신이 도모하는 일들이 직접 성취되어 나가는 인간의 격상된 위상을 내포하게 된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인존(人尊)’이라고 하여 인간이 신성화, 신격화되는 존엄성을 확보하며 선천시대와 구별된 후천시대의 인간의 격위를 나타내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인간의 격상된 위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된다. 여성은 남성을 통하여 이러한 격상된 인간의 위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여성의 삶과 거리가 있으며 여성 스스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신인조화는 자신의 종교적 수행의 노력에 의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추구하여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신인조화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를 통한 인간 위상의 변화를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됨으로써 의미가 있다. 신성 혹은 신격을 남성만이 독점하려는 남성 중심적 종교문화 구조를 궁극적으로 대순사상은 지양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누구나 인간에게 인존의 위상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이는 그 어떤 차별을 전제하지도 않는다.<sup>30)</sup> 인간은 신성적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각자 자신의 닦은 바(修道)와 역량에 따라 누구나 신성

28) 같은 책, 교법 3장 35절.

29)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30) 같은 책, 교법 2장 17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

을 지닌 주체적인 인격을 소유하며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인조화는 신앙공동체에서 신권 혹은 신격을 남성만이 주장할 수도 없으며 여성이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교의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3. 해원상생(解冤相生)과 여성

해원상생은 음양의 관계로 설명되는 상대성이 상극의 지배 원리가 아니라 상생의 원리이며 이러한 상호 관계성의 몰이해로 인하여 발생된 인류의 파멸지경의 궁극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음양 상생의 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순진리회의 이상이 담겨있다. 『典經』에 의하면, 음양으로 비유되는 상호 관계성이 상극의 일방적인 지배 관계로 이해됨으로써 원(冤)을 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31)</sup>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계(三界)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인간을 파멸에서 구원하는 삼계공사(三界公事)가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구원의 대역사인 공사가 신앙의 대상인 증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본다.<sup>32)</sup> 증산의 이러한 삼계공사는 곧 천지공사로서 상생의 도가 실현될 수 있는 삼계의 구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인류를 향한 구세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원을 품게 되는 자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다. 이러한 원이 천지에 가득하게 된 최초의 기원은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원을 품고 자행한 사건

31) 원(冤)이란 한자는 토끼가 덮개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무고하게 덮어 쓴 죄, 원통하게 누명을 쓰다, 원한, 증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李樂毅, 『漢子正解 3』 (서울: 比峰出版社, 1994), p. 624.

32) 『전경』, 공사 1장 3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에서 비롯되고 있다.<sup>33)</sup> 『典經』에서 인류 최초로 원을 품은 자는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류 죄의 기원을 여성에게 두고 있는 기독교 시각과는 대조적이다. 해원상생에서 원은 상호간에 쌍방향적인 소통의 구조를 함의하는 상생(相生)의 도가 실현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원상생은 원과 척의 관계를 해결하고 상생의 도로 평화로운 상호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원이란 원한(怨恨)의 정서를 담지하며 “한은 좌절의 대상에 대한 원망이 강한 시름을 낳아 내부에 쌓여 응어리진 정의 덩어리”로서 좌절 대상에 대한 원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sup>34)</sup> 남성은 ‘이성적 합리적’이며 여성은 ‘감성적 비합리적’이라고 이해하여 온 남성 중심적 여성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典經』에서 원한의 정서를 지닌 최초의 남성이 등장한다는 점은 남성 중심적인 편협한 여성 이해를 대순사상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예증한다고 볼 수 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강요당한 남성에게도 이러한 정한의 심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을 발산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강력한 성취동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한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서 없애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게 된다. 그래서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의 풀이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sup>35)</sup>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33) 같은 책, 공사 3장 4절,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34)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서울: 세계출판사, 1997), p.300.

35) 같은 책, p.301.

증산 당시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의 차별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sup>36)</sup> 『典經』의 구절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증산의 관심과 배려가 담겨있다. 증산은 신분사회 속에서 고통받아온 천인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았다.<sup>37)</sup> 이러한 신분질서 속에서 살아온 천인들의 경시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원상생의 종지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증산은 사회적 약자들의 해원을 위하여 특별히 여성의 현실에 관심을 보였다.

상제께서 김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 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각자 앞에 청수를 떠 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 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sup>39)</sup>

엄격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었던 조선시대에 남성 상위계층은 선비의 신분으로 유교 제례를 주관하는 사제였다면, 여성 하위계층은 무당의 신분으로 무교(巫敎) 제례를 주관하였다고 볼 수

36) 『전경』, 교법 1장 67절.

37) 같은 책, 교법 1장 9절,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38) 같은 책, 교법 1장 10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 주셨도다.”

39) 같은 책, 교운 1장 32절.

있다.<sup>40)</sup> 증산은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당시 먼저 천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고자 무당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신분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꺾어서 원한이 많을 수 있는 여성에게 삶의 희망을 품게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증산은 죄와 상극이 지배한 선천시대와 달리 상생의 도가 구현되는 후천시대를 위해 첫 공사로써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도록 한다.<sup>41)</sup>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sup>42)</sup>고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증산은 여성을 ‘여장군(女將軍)’, ‘대장부(大丈夫)’라고 칭함으로써 의롭지 못한 사회의 부조리함에 저항하며 당당하게 삶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왔다.<sup>43)</sup> “사람을 쓸 때는 남녀 노약을 구별하지 않느니라.”<sup>44)</sup>는 증산의 가르침은 선천시대의 철저한 성역할의 가부장적 인식을 벗어나야 하며 폐습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인하여 인간 상호간에 원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

40) 최봉영, 『한국사회의 차별과 억압』 (서울: 지식산업사, 2005), p.225.

41) 『진경』, 공사 2장 17절,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 년 첫 공사를 행하려고 어느 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게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五만 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42) 같은 책, 교법 1장 46절.

43) 같은 책, 교법 2장 57절 참조 ; 『진경』, 권지 1장 17절, “백 남신의 친족인 백 용안(白龍安)이 관부로부터 술 도매의 경영권을 얻음으로써 진주 부중에 있는 수백 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 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女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 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두었도다.”

44) 같은 책, 교법 2장 40절.

으로 이해된다.

#### 4. 도통진경(道通眞境)과 여성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선천시대와 구별된 후천시대의 이상세계를 말한다. 그 이상세계란 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계다. 『典經』은 이러한 세계를 시기 질투와 같은 상극적 정서는 끝을 맺고 전쟁도 종식된 세계, 조화로우며 해원할 것이 없고 빈부의 차별 등이 없는 세상으로 그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sup>45)</sup> 도통진경의 이상세계는 약자와 천한 자들이 선천에서의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받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선천에서 힘과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치는 세상이기도 하다.<sup>46)</sup> 이러한 세계에서는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어긋침이니 죄가 워낙 크므로 내가 관여치 않노라.”<sup>47)</sup> 『典經』의 구절처럼 여성이 성적 도구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계이며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의 예를 갖추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대순진리회에서 예는 “사람으로서 일생동안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起居動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

45) 같은 책, 예시 80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진경』, 예시 81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욕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46) 같은 책, 교법 2장 11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고 이르셨도다.”

47) 같은 책, 교법 1장 51절.

48) 같은 책, 공사 1장 32절,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 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여 주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sup>49)</sup> 따라서 도통진경의 이상세계에서 예를 벗어난 인격의 차별이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50)</sup>는 증산의 뜻은 후천시대의 미래 지향적인 이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상에 실현되어야 함을 대순진리회는 추구하고 있다.<sup>51)</sup>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며 지향하는 이상세계는 분명 저절로 도래하는 세계가 아니다. 인존의 위상을 갖춘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인들의 실천적인 삶이 유의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도통진경의 이상세계는 신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종교의 이상적 인간이 됨으로써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인간을 향하여 대순진리회 신앙인들은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스스로 수도하며 정진한다고 볼 수 있다.

『대순지침』에 의하면,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sup>52)</sup>라고 하였다. 대순사상에서 도통은 개인의 수도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그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성은 대순진리회의 이상적 인간을 의미하는 도통군자(道通君子), 지상신선(地上神仙)이 될 수 있다. 후천시대는 선천시대와 달리 여성들이 도통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sup>53)</sup>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이해된다. 단지 이 부분은 선천시대에서 그 동안 억압과 착취로 인한 이중 차별의 고통을 겪어 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수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음

49) 『대순지침』, p.68.

50) 『전경』, 공사 1장 2절.

51)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실현, 지상천국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경』, 교운 2장 32절 참조.

52) 『대순지침』, p.37.

53) 『전경』, 예시 45절.

이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유교에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군자의 위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주로 교육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은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위상이 마땅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sup>54)</sup>고 하였으니 그 도통의 경지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으며 각자의 닦은 바에 따라서 이를 수 있게 된다.<sup>55)</sup>

### Ⅲ. 대순사상 여성 이해의 현대적 의미

#### 1. ‘차별의 문화’를 넘어 ‘평등의 문화’ 추구

현대 여성학(Women’s Studies)의 이론적 토대가 된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에 의한, 여성만을 위한 담론을 넘어서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과 성향은 단일하지 않다.<sup>56)</sup> 예를 들자면 여성 차별은 단순히 남성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백인 여성에 의한 흑인 여성의

54) 『대순지침』, p.38.

55) 앞의 책, 교운 1장 41절. 각자의 노력에 의한 수행의 중요성은 다음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전경』, 교운 1장 33절, “공우가 어느 날 상계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56) Nancy Tuana, *Rosemarie Tong, Feminism and Philosophy: Essential Readings in Theory, Re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olorado: Westview Press, 1995); Wendy Kolmar, Frances Bartkowski, *Feminist Theory: a Reader* (Bost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3); 로즈마리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2000);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서울: 민음사, 2000); 제인 프리드먼, 『페미니즘』, 이박혜경 역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2) 참조.



차별처럼 인종과 신분에 의한 여성 내부에도 차별이 있었다는 현실에 주목하게 된다. 기존 여성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목소리와 구별된 흑인 여성들의 페미니즘(Black Feminism)인 우머니즘(Womanism)이 등장함으로써 여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다양성이 부각되기도 한다.<sup>57)</sup>

한편 서구 여성을 중심한 담론들과 구별된 제3세계 여성들의 탈식민지 성향의 페미니즘도 등장함으로써 현대 페미니즘의 동향은 그야말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sup>58)</sup>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현실은 성뿐만 아니라 인종, 신분 등과의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의 다양한 담론은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 온 여성을 여성의 경험과 시선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부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은 인간의 발달심리학 이론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결여된 존재며, 열등한 존재로 왜곡되어 왔음을 지적한다.<sup>59)</sup>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sup>60)</sup>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에서 여성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남성의 목소리로만 구성된 결과물로 여성의 도덕성이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이다.<sup>61)</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

57) Katie G. Cannon, *Katie' canon: Womanism and the Soul of the Black Community* (New York: Continuum, 1995); Stacey Floyd-Thomas, *Deeper Shades of Purple: Womanism in Religion and Socie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5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소, 2001); 유제분 편,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김지영 역 (서울: 현대미술사, 2001); Chandra Talpade Mohanty,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e Solidar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윤혜린, 『지구화 시대 여성주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pp.193-223 참조.

59)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60)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다음을 참조. Kohlberg, 『도덕발달의 철학』, 김봉소·김민남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85) 참조.

인 문화 속에서 잉태된 차별의 문화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다.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순사상 자체가 차별과 억압에 의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약자에 대한 철저한 관심이 근본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sup>62)</sup> 『典經』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유교의 왕조적 신분사회 서열은 “차등적 규범을 통해서 지나치게 인격과 서열을 합치시키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인격보다 서열을 중시하는 풍토를 낳게 되었다.”<sup>63)</sup> 이로 인하여 “유교는 차등적 의례로 서열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인격자처럼 대접받게 함으로써 인격이 독자적인 가치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여놓았다.”<sup>64)</sup> 따라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증산은 이러한 인간 상호간에 존비(尊卑), 귀천(貴賤)으로 인한 차별의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의 범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격 차별의 문화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해원시대를 맞아 증산은 그의 가르침을 남성 종도들에게만 국한시켜 전하지 않았다. 그는 여섯 명의 무당에게 먼저 전함으로써 성차별과 신분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중 차별을 겪어 온 당시 천한 소외 계층인 여성에게 관심하며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었다.<sup>65)</sup> 이러한 점은 그가 말하는 선천시대와 구분된 후천시대야말로 인간은 성별, 노소, 신분 등과 무관하게 인존시대로서 누구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 평등 문화의 추구 이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증산은 당시 유교의 신분사회 속에서

61) Carol Gilligan, op. cit., p.31.

62) 『진경』, 교법 1장 24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이니라」 하셨도다.”

63)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p.235.

64) 같은 책, p.235.

65) 한국문화 속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 최봉영,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pp.19-74 참조.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인격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깨우침을 주었으며 다양한 차별의 문화에서 인간 상호간 인격적 평등의 문화를 지향하는 이상을 펼치고 있었다.

종교와 관계된 성차별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논의 가운데 하나는 기성종교의 문화권에서 신권과 진리를 장악한 남성들이 남성 중심 지배 문화를 야기함으로써 상실된 여성적인 신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남성 중심적인 종교문화 속에서 “신성을 지닌 여성(divine women)”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66)</sup>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순사상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신인 조화의 신성한 인격체로서 그 주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는 음과 양에 대한 남성 중심적 이해를 넘어 음과 양의 대등한 위상과 진리로서의 가치를 기반으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평가 절하되어 온 음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음양합덕을 통하여 상대적인 음과 양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典經』에서 증산이 후천시대의 음양 도수를 조정하고 ‘정음 정양’(正陰 正陽)<sup>67)</sup>이란 표현을 한 것은 선천시대와 달리 음양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요청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본질적으로 음과 양은 진리 그 자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과 양에 대하여 정(正), 부정(不正)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음 정양을 증산이 언급하였다는 것은 음양 이해에 대한 선천시대의 차별적 해석의 한 계가 있었음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또 다른 이름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여필종부(女必從夫), 부창부수(夫唱婦隨), 삼종지도(三從之道)와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윤리를 낳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68)</sup> 이런 평가가 가능

66) Luce Irigaray, *Sexes and Genealogies*, trans. Gillian C. Gil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60.

67) 『전경』 공사 2장 16절.

68) 배병삼,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서울: 녹색평론사, 2012), pp.76-77.

한 것은 여성의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있지만 남성의 칠거지악이 없는 것처럼 아내의 남편에 대한 도리는 강조되지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는 외면되기 때문이다.<sup>69)</sup> 이러한 삼강오륜이 대순진리회의 신앙인의 수칙에 나타나고 있다.<sup>70)</sup> 그러나 대순진리회는 삼강오륜에서 남편과 아내 상호간의 예와 가정 화합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부부 상호간의 존중을 함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순사상은 남성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여성 이해의 관점을 넘어서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생명 파괴의 문화’를 넘어 ‘생명 보살핌의 문화’ 추구

현대사회 인간이 처한 위기의 현실은 단순히 인간 상호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에 그치지 않고 있다. 생태 파괴로 인한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담론은 생태학(Ecology)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sup>71)</sup> 생태학 담론의 하나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이며 차별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회복함으로써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태학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성찰하고 있다.

생태학과 페미니즘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페미

69) 조선시대 열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을 참조. 박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08)

70)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大巡眞理會要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3), p.21,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도덕次第道德의 근원根源이라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夫婦和睦하여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홀愛恤 지도指導하고, 친우간親友間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71) 생태학에서 환경은 생물의 서식지, 자연은 생물과 환경을 포함한 의미로서 생태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허광·이동희,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 (서울: 통일출판사, 2000), pp.60-61 참조.

니즘의 논의도 단일하지는 않다.<sup>72)</sup> 그러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성 인식에서 남성적 관점에 기초한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 지배적’인 자연 이해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내부의 공통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재인식되려면 첫째, 이성과 감정, 문화와 자연, 여성과 남성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며 위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를 유기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계성이 부각되는 관계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sup>73)</sup>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에 나타난 해원의 대상은 삼계(三界)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만 해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증산은 서양의 물질 중심적 사고와 자연을 정복하려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74)</sup>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sup>75)</sup>는 『典經』의 구절은 인간이 삼계와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증산은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동물들을 위한 해원공사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잡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

72) 에코페미니즘과 그 유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Janet Biehl, *Rethinking Eco-Feminism* (Boston: South End Press, 1991); Carol J. Adams, *Ecofeminism and the Sacred* (New York: Continuum, 1993); Greta Claire Gaard,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Karen J. Warren, Nisvan Erkal, eds,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73)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 『다시 꾸며보는 세상-생태여성주의의 대두』, 정현경·황혜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0) 참조.

74) 『전경』, 교법 2장 11절.

75) 같은 책, 공사 3장 29절.

려 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데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 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sup>76)</sup>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고려하게 함으로써 여성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는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계성을 인식케 함으로써 생명 파괴의 문화에서 생명 보살핌의 문화를 추구해 나가는 교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 페미니즘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성차별의 문화 속에서 남성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남성학(Men's Studies)의 등장은 남성 중심적인 여성 이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바로 남성 자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었다.<sup>77)</sup> 현대사회는 적어도 양성(兩性)에 대한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의 문화가 요청되며 생명 파괴적이며 지배적인 남성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이해의 한계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녀와 멀어지는 외로운 아버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남성 중심 지배 문화는 여성은 경제적 책임과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은 남성의 몫이라는 무거운 짐을 남성 스스로에게 떠안겨줌으로써 '능력 콤플렉스'를 낳게 하였다. 가부장적인 남성과 여성 이해의 한계를 넘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가사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남성들의 노력이 함께 하고 있다.<sup>78)</sup> 현대사회에서는 분명 가부장적인 남성상에 변화가

76) 같은 책, 행록 2장 15절.

77) Franklin, 『남성학이란 무엇인가』, 정채기 역 (서울: 삼선, 1996); 이토 키미오, 『남성학 입문』, 정채기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7); 정채기, 『남자도 사람이다』 (서울: 집현전, 1997); 조정문·이의수, 『남성학과 남성운동』 (서울: 동문사, 2000); 사사키 마사노리·이재택·정채기·한지환,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학과 남성운동』 (서울: 원미사, 2007) 참조.

78)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아버지가 되는 15가지 방법』 (서울:

일어나고 있다. 즉 전쟁, 자연 정복, 억압과 착취 등과 같은 생명 파괴적인 남성상에서 생명 보살핌적인 남성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남성 중심적인 지배 문화에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한 생명 보살핌의 역할이 남성과 협력적인 문화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양성성의 조화이자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음양합덕 가치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남성 중심적 가치체계에서 비하되거나 여성의 몫으로만 이해하여 온 자애, 위로, 돌봄 등의 가치가 『대순지침』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생명 보살핌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79)</sup> 이런 점에서 양성 조화의 협력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대순사상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선천의 남성상을 넘어섬으로써 생명 파괴의 문화를 생명 보살핌의 문화로 이끌 수 있는 교의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IV. 마치면서

왜 종교가 인류 문화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적어도 종교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려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시대정신을 이끌어나가거나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고양된 정신

명진출판부, 1998); 장경근·정재기, 『아버지가 나하면 딸의 인생이 바뀐다』 (서울: 황금부엉이, 2005); 임정복, 『좋은 아버지 수업』 (서울: 좋은날들, 2012) 참조.

79) 『대순지침』, p.80, “자애는 잘못을 감추어 주기도 하고 용서도 하니, 책망보다 자애가 더 큰 것임을 깨닫고 처사하라.”; 같은 책, p.85, “윗사람은 모자의 정과 애홀(愛恤)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대하고, 대화의 길을 터어서 수반 체계를 관리하라.”; 같은 책, p.67, “자모지정(慈母之情)과 은사지의(恩師之義)의 심정으로 통심정이 되게 힘써라.”; 같은 책, p.71, “상호 통정심의 자모지정(慈母之情)으로 모든 도인들은 심정을 바르게 하라.”

적 각성과 도덕적 성숙에 도움이 되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될 것이다.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인 증산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고통 받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나’와 ‘너’를 ‘우리’로 인식하게 하는 ‘상생적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상생적 존재는 인간이 상호 관계적 자아라는 각성이 반영되어 있다.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는 음과 양, 여성과 남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더 나아가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과거 남성 중심의 상극 문화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성 조화의 상생 문화적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다. 여성은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스스로 수도(修道)하여 신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이상세계 실현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여성 이해는 남성 중심주의 혹은 여성 중심주의가 지니는 편협한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성 상생중심주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상이 보편적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성을 담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보편성이란 적어도 인류 전체를 향한 적용가능성이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상호 관계성을 지닌 개체다. 대순사상은 이기적인 삶은 원과 척을 만들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관계적 조화를 추구하며, 인간 개체의 존엄성을 상호간에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이끌 수 있는 보편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순사상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평화사상으로서 그 보편성을 담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보편성의 실현은 결국 대순진리회 신앙인들의 실천적인 삶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典經』,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13판.  
 \_\_\_\_\_,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2판.  
 \_\_\_\_\_, 『大巡眞理會要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3.
-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고남식,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의 原理-後天仙境과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大巡思想論叢』 2, 1997.
- 로즈마리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2000.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 박마리아,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관점에서 본 대순진리회의 여성관」, 『신종교연구』 22, 2010.
- 박용철, 「宗指의 表明이 갖는 宗教的 意味에 대한 考察」, 『大巡思想論叢』 6, 1998.
- 배병삼,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서울: 녹색평론사, 2012.
- 사사키 마사노리·이재택·정채기·한지환,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학과 남성운동』, 서울: 원미사, 2007.
-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청주: 도서출판 하원정, 2009.
- 수아드, 『명예살인』, 김명식 역, 서울: 울림사, 2007.
-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 『다시 꾸며보는 세상-생태여성주의의 대두』, 정현경·황혜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0.
- 오은경, 「이슬람 여성과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연구』 9, 2009.
- 유제분 편,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김지영 역, 서울: 현대미학사, 2001.
- 윤희련, 『지구화 시대 여성주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 융, C. G., 『C. G.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1993.

- \_\_\_\_\_, 『C. G. 용 무의식 분석』,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1994.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3.
- \_\_\_\_\_,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1.
- \_\_\_\_\_,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2.
- 이락의, 『한자정해 3』, 서울: 比峰出版社, 1994.
- 이토 키미오, 『남성학 입문』, 정채기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희수,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서울: 청아출판사, 2011.
- 임정목, 『좋은 아버지 수업』, 서울: 좋은날들, 2012.
- 장경근·정채기, 『아버지가 나서면 딸의 인생이 바뀐다』, 서울: 황금부엉이, 2005.
- 정채기, 『남자도 사람이다』, 서울: 집현전, 1997.
- 제인 프리드먼, 『페미니즘』, 이박혜경 역,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2.
- 조정문·이의수, 『남성학과 남성운동』, 서울: 동문사, 2000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아버지가 되는 15가지 방법』, 서울: 명진출판부, 1998.
-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서울: 사계절출판사, 1997.
- \_\_\_\_\_, 『한국사회의 차별과 억압』, 서울: 지식산업사, 2005.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소, 2001.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서울: 민음사, 2000.
- 허광·이동희,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 서울: 동일출판사, 2000.
- Franklin, 『남성학이란 무엇인가』, 정채기 역, 서울: 삼선, 1996.
- Kohlberg, 『도덕발달의 철학』, 김봉소·김민남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85.
- Adams, Carol J., *Ecofeminism and the Sacred*, New York: Continuum, 1993.
- Anderson, Leona M. Young, Pamela Dickey, *Women and*

- Religious Tradi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Biehl, Janet, *Rethinking Eco-Feminism*, Boston: South End Press, 1991.
- Cannon, Katie G. *Katie' canon: Womanism and the Soul of the Black Community*, New York: Continuum, 1995.
- Fisher, Mary Pat, *Women in Religion*, New York: Pearson, 2006.
- Floyd-Thomas, Stacey, *Deeper Shades of Purple: Womanism in Religion and Socie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 Franzmann, Majella, *Women and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Gaard, Greta Claire,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Husseini, Rana, *Murder in the Name of Honor: The True Story of One Woman's Heroic Fight Against an Unbelievable Crime*,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9.
- Irigaray, Luce, *Sexes and Genealogies*, trans. Gillian C. Gil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Kolmar, Wendy, Bartkowski, Frances, *Feminist Theory: a Reader*, Bost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3.
- Mohanty, Chandra Talpade,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e Solidar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Pope, Nicole, *Honor Killing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Tuana, Nancy, Tong, Rosemarie, *Feminism and Philosophy:  
Essential Readings in Theory, Re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olorado: Westview Press, 1995.

Warren, Karen J., Erkal, Nisvan, eds,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Abstract▪

##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Women by the Daeseon Thought and Its Contemporary Meanings

**Moon Sun-young**

Sun Moon University

There are many discourses about ‘religion and women,’ bu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ne about ‘religion and men.’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religions have been male-centric and have produced legions of male-dominated cultures. In Catholic Church, even today, only men can become the Pope, and women are not allowed to enter priesthood. Meanwhile, in the Islamic cultural areas, the reality is that women are being victimized by men who do not recognize the bad habits such as honor killings, or honor crimes. It is certain that gender discrimination in religious and cultural areas cannot be overlooked.

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women in the thought of Daeseonjinrihoe(大巡眞理會), that is, the Daeseon Thought, which claims to advocate world peace. Daeseonjinrihoe is understood as a thought which tries to overcome gender discrimination prevalent in the existing religions and presents the vision of a new religion which aims to realize a new world of

peace by drawing a distinction between the Former Heaven and the Latter Heaven.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standing of women by looking at the tenet of Daesoonjinrihoe that consists of ‘YeumYangHapDeok (陰陽合德), SinInJoHwa(神人調化), HaeWon-SangSaeng(解冤相生), DoTongJinGyeong(道通眞境).’ The tenet is thought of as the basis of creed on which the understanding of women by the Daesoon Thought can be grasped as it basically contains the essence of teaching of the order.

In the Daesoon Thought, women have the same status as men; women can become holy and dignified beings by engaging in independent, active, and autonomous spiritual exercises, and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world. This understanding of women by the Daesoon Thought contains the idea of peace which can turn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into ‘the culture of equality,’ and ‘the culture of life destruction’ into ‘the culture of life care.’

**Key words** : Daesoon Thought, New Religions, Daesoonjinrihoe, Women, Feminism, Women’s Studies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19일